

# [일본해녀 <1>] 무너진 삶터 일구는 ‘아마’의 모습 역척스런 제주 ‘잠녀’의 삶 투영

등록 : 2005년 09월 04일 (일) 18:51:08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지난 3월 20일, ‘지진 경계의 공백지역’이라 불리던 후쿠오카에서의 지진이 발생, 모든 내외신을 바쁘게 했다.

그리고 5개월이 흐른 뒤다. 지난달 28일 잠녀 취재를 위해 일본 이시가와현 와지마시로 향했고, 마침 모 일본 방송이 특집으로 방송한 다큐멘터리에서 ‘잠녀’의 흔적을 찾았다.

다큐는 당시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던 켄가이지마(玄界島)의 변화를 읽어내려갔다. 켄가이지마는 지진 발생으로 모든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텅 비기도 했다. 그러나 다큐에서는 한두명씩 주민들이 돌아오고 삶터를 일구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 출신 여성의 결혼식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 조명해냈다.

무너져버린 집과 부서진 항구 시설 등을 재건하는데 본인들의 부담 역시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으로 돌아온 사람들, 밭이며 일터를 되살리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시 바다로 나가 자맥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2분 남짓 스쳐 지나가는 화면이었지만 어떤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역척스레 삶을 이어온 우리 잠녀들의 모습이 투영됐다.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두 곳에만 있는 것이 있다. 다음아닌 ‘잠녀’다.

일본에서 잠녀는 한자로 ‘해녀(海女)’라고 쓰며, 그들은 ‘아마’라고 불린다. ‘모구리’라고 잠수하다는 동사 ‘모구루(潜ぐる)’에서 나온 말이지만 잠녀를 천하게 표현한 것만은 분명하다.

16~17세기에 출현했다고 알려지는 잠녀가 이미 5세기경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가정한다면, 잠녀는 상당히 오랜 시기부터 존재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건너왔다’는 표현에서 제주의 잠녀가 일본 아마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잠녀들의 일본 출가는 1903년(명치 36년) 미야케지마(三宅島)로 나간 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반대로 일본 아마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1894년께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해안선을 따라 메이메현과 오이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등에서 잠녀들의 활동이 많았지만 굳이 이시가와현 와지마시를 선택한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와지마시에는 해사촌(海士村)이란 마을이 조성돼 있으며, 그 배경에는 일본 아마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보존 노력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은 행정구역 등으로 남아있지만 와지마시가 시제시행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와지마의 역사」에서는 1649년 작성된 해사 관련 자료를 인용해 다이묘 시대 매년 정월과 2월께 서국(西國) 현 후쿠오카현 가네가사키라고 전해짐)에서부터 인근 노도(能登)로 전복채취를 위해 왔던 일본 아마들이 돌아가지 않고 부락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부락이 커지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막부를 다스리던 마에다 도시에의 고민도 커졌다. 마에다 도시에는 이들이 살수 있는 땅을 내주었고 대신 전복 등 채취물 등을 헌상하도록 했다. '해사'라는 명칭도 이때 붙여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지역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해구라지마(倉島)다. 물질로 삶을 영위해 가는 작은 섬인 해구라지마는 해사촌에 속해 있고, 인근의 작은 섬들은 국가 관리하에 해사촌에서 빌려 쓰고 있다.

이곳 아마들의 모습은 또 제주 잠녀와 많이 닮았다.

해구라지마의 인구가 가장 늘어나는 때는 전복 등이 많이 잡히는 7월부터. 물질을 하는 아마는 현재 180여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마들은 각각이 잡은 해산물들을 배를 타고 나가 판매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배의 선주를 포함해 평등하게 나눴다고 한다. 그중 70세 이상의 아마들도 자신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물질에 나서 '오모테돈'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른바 베테랑 아마는 수심 20m이상까지도 한숨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곳 어장 역시 계절이나 조류 등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곳이 있어 아마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하나는 심장이 강하고, 숨이 길며,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 아마들 역시 수압 등을 원인으로 한 잠수병과 감압증(減壓症)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자 일본 정부에서는 아마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량감을 더하는 웨이트 슈트의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총면적 0.552㎢, 인구라고 해봐야 55세대·164명(여성 81명)에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하거나 오징어·방어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작은 섬이지만 이곳에는 없는 것 빼고는 웬만한 사회복지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특별취재반>